

공사 중단 방치 건축, 전남 15곳·광주 9곳

국토교통부 올해 8월... 전남 8곳, 광주 4곳은 공사 재개·철거 중 전국 322곳으로 도시미관 저해·지역 쇠퇴화 등 사회 문제 지속



공사 중단 이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 전남 15곳, 광주는 9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남 지역 내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은 15곳이다.

이 가운데 8곳은 공사 재개·철거 등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

광주는 짓다 만 건축물이 9곳이며, 이 가운데 4곳이 공사 재개 또는 철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이 322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10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은 전체의 71.1%에 이르는 229곳이다. 15년을 초과한 건물은 153곳, 47.5% 가량이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강원 46곳, 충남 44곳, 경기 41곳 순으로 장기 방치 건축물이 많았다.

국토부는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해

결을 위해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선도사업 후보지 38곳을 선정했지만 실제 정비 추진은 4곳에 불과하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은 이해관계자 간 소송·채권 문제 등 복잡한 권리 관계가 형성돼 있으며, 자금 또는 사업성 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허영 의원은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주변 지역 쇠퇴화 등의 사회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장기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와 해당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지자체, 건축주, 이해관계자와의 조정·합의를 촉진하고 다양한 방식의 정비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재환기자



나주경찰, '외국인 유학생 자율방범대' 발대식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와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는 학교 관계자와 외국인 자율방범대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자율방범대' 발대식을 가졌고 본격적인 치안활동에 들어갔다.

나주=송준표기자



무등산국립공원, 산악단체 합동 새인봉 암장 점검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태한)는 지난 17일 산악단체 합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낙석위험구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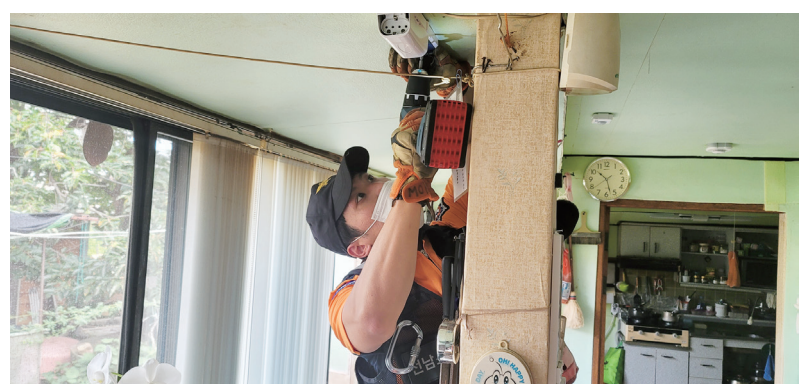
서선욱기자



여수소방, 긴급구조통제단 기능숙달 도상훈련 실시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지난 16일 본서 3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추돌 교통사고 대응 긴급구조 통제단 기능숙달 도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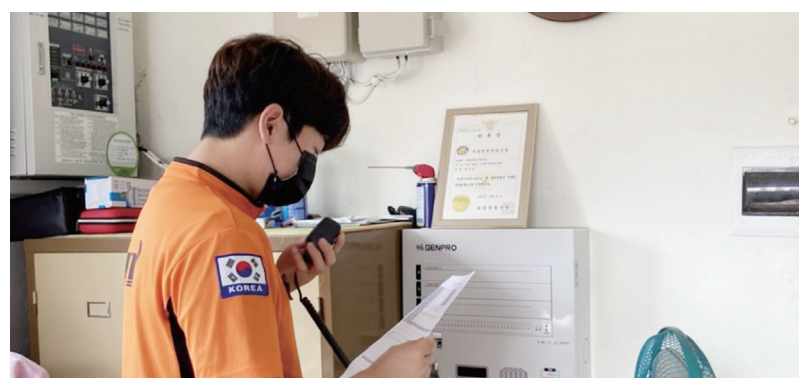
여수=김현근기자



광양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 진월면 생활안전서비스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 119생활안전순찰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한발 앞선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김현근기자



담양소방, 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 강화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가 최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강화 추진한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장흥소방, 전남 제1회 생활안전대 기술경연대회 종합 2위

장흥소방서(서장 신항식)는 제1회 전라남도 생활안전대 기술경연대회에서 종합 119안전센터 생활안전대원(소방장 이문수, 소방장 김승현, 소방교 김승운)이 참가하여 종합 2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장흥=김도영기자

독감 예방접종 이번주 시작... "생애 첫 접종 어린이 먼저"

내일 어린이부터 무료 독감 예방접종 시작

방역 당국이 3년 만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올해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twindemic)'이 예고된 만큼 한 번에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맞는 것도 가능하다. 대신 왼팔에 독감 백신, 오른팔에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방식으로 접종부위를 달리 해야 한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2022-2023절기 독감 국가예방접종'이 이뤄진다.

오는 21일부터는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한 번도 접종을 하지 않은 2회 접종 대상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10월5일부터는 만 13세 이하의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가 접종한다.

고령자의 경우 10월12일부터는 75세 이상, 10월17일 만 70~74세, 10월20일 만 65~69세의 접종이 시작된다.

국가예방접종은 별도의 사전예약 없이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주소지 관계 없이 전국

어는 곳에서나 접종이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은 전국에 2만여 개소가 있으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kdc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접종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임신부는 산모수첩을 지참해야 한다.

계란이나 필라리시스, 중증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는 10월5일부터 각 시·도별로 지정된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세포배양 독감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의사 소견서, 진단서, 접종 의뢰서 등을 지참하고 지정 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동시에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신 독감 백신은 왼팔 삼각근, 코로나19 백신은 오른팔 삼각근에 접종하는 식으로 접종부위를 구분해야 한다.

독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을 활용한다. 1066만 도즈 조달계약을 체결해 순차적으로 공급 중이다. 정부가 백신을 일괄 구매해 직접 공급을 주관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했으며, 백신 물량이 부족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가 공급을 백신 30만 도즈를 별도로 확보했다.

독감 무료 예방접종 일정

접종대상	접종 기간
생후 6개월~ 만13세 어린이 (2009.1.1~2022.8.31 출생)	*2회 접종 대상자 9월21일~2023년 4월30일 1회 접종 대상자 10월5일~2023년 4월 30일
임신부	만 75세 이상 (1947.12.31 이전 출생) 10월12일~12월31일 만 70~74세 (1948.1.1~1952.12.31) 10월17일~12월31일 만 65~69세 (1953.1.1~1957.12.31) 10월20일~12월31일

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

동시접종 시 접종부위 구분

예) 인플루엔자-삼각근 왼팔, 코로나19-삼각근 오른팔

자료: 질병관리청

백신 유통과정에서 2~8도의 저온 유통(콜드체인)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 조달업체로부터 유통사업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백신 보관시설과 운송장비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올해 국내에는 독감 백신 약 2570만 도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공급될 예정이다.

만성 폐·간질환이나 면역저하자, 당뇨병자, 50~64세 성인, 고위험군 대상시설 종사자 등은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니지만 가까운 병·의원에서 유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일부

지자체는 추가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지난 2년간 독감이 유행하지 않아 자연면역이 감소, 독감 유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독감에 감염되면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 임신부, 고령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유행 전에 접종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최이슬기자

광주·전남 역대 9월 일 최고기온

18일 광주·보성·순천시 역대 9월 최고기온 기록

연일 가을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 곳곳에서 기상관측 사상 9월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남 광주와 전남 보성·순천은 9월 일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다.

전남 광주는 공식 관측지점(북구 운암동) 기준 최고 기온 34.5도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 9월 일 최고기온 기록인 1994년 9월 1일 34.4도를 뛰어넘은 것이다. 28년 만의 기록 경신이다.

전남 보성과 순천도 각각 34.2도, 32.2도를 기록해 지난 2011년 9월 1일 최고기온을 11년 만에 넘어섰다.

전남 낮 최고 기온은 광양 읍내 36.3도, 담양 35.9도, 광주 과기원 35.3도, 보성 벌교 35도 등 36도 안팎으로 나타나, 9월 중순 이례적인 무더위가 이어졌다.

밤사이 광주와 전남 14개 시·군에

서도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앞서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차례로 내려진 광주와 담양·화순·나주 지역 폭염주의보는 전날 오후 해제됐다.

기상청은 늦더위 원인으로 '태풍 간접 영향'과 '맑은 날씨'를 꼽았다.

제14호 태풍 '남마돌' 북상 여파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 자리에서 따뜻한 동풍 등이 한반도에 영향을 줬고, 연일 구름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져 기온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무더위는 태풍이 물러가면서 한 풀 꺾일 전망이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26~31도 분포를 보이겠다. 늦은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는 20일 낮 기온은 26도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서선욱기자

여가부 "스토킹 사건 발생땐 '경찰 등 기관 연계' 강화"

여성혐오 범죄 논란엔 "피해자 보호에 집중한 발언"

여성가족부는 최근 발생한 '서울 신당역 스톱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 사건 통보 시스템과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희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장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저희가 신고 초기부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서 경찰과 1366센터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신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이 스톱킹 범죄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김 과장은 해당 회의에 대해 "기관 간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문제점 지적이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 간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